

#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론

- 기즈키를 통해 보는 죽은 자의 상실감을 중심으로 -

李 惠 仁\* · 尹 惠 暎\*\*

(e-mail : xelfinx@hanmail.net · yun1971@cnu.ac.kr)

---

## 目 次

---

1. 들어가며
  2. 『노르웨이의 숲』 속의 죽은 자들의 ‘상실감’
  3. 자기 폐쇄적 세계의 균열과 경계선 상의 자아
  4. 보완자로서의 나오코의 부재와 안식처의 상실
  5. 나가며
- 

## 1. 들어가며

2014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지난 10년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sup>1)</sup>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인구의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률이 차지하는 비율은 28.1%로 이는 37분마다 1명이 자살을 한 수치<sup>2)</sup>로 볼 수 있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또한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또한 근래 사회 보도 중에서 ‘자살’문제를 다룬 기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이

---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근대문학 전공

1)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page=21&CONT\\_SEQ=301867](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page=21&CONT_SEQ=301867)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분석(검색일: 2014.11.12)

2) [http://ko.wikipedia.org/wiki/OECD\\_회원국\\_자살률\\_목록](http://ko.wikipedia.org/wiki/OECD_회원국_자살률_목록)(검색일: 2014.03.21)

를 통해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물질적, 소비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해졌듯이 인간의 생명 또한 인스턴트 상품처럼 쉽게 소비되는 가치로 전락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죽음을 쉽게 접하고 소비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버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살’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자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현대의 문학 작품에서도 사회의 병약한 일면인 ‘자살’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1949~, 이하 ‘하루키’라 칭함)의 작품에는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쥐 삼부작(ねずみ三部作)’ 이후 발표된 장편 소설이자 리얼리즘형식을 갖춘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1987, 講談社)에 대해 센고쿠 히데요(千石英世)가 “이 소설의 일면을 자살소설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sup>3)</sup>고 지적하고 있듯이, ‘상실감’을 경험한 각 인물들은 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자의적(自意的)죽음, 즉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르웨이의 숲』에서 자살을 하는 주요인물로는 기즈키(キズキ)와 나오코(直子)를 들 수 있으나 스토리는 주로 삶의 위치를 접하고 있는 인물인 와타나베(ワタナベ)를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죽음은 삶의 대극이 아닌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본 작품을 관철하는 키워드인 ‘상실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삶의 위치에 선 인물 뿐 아니라 자살을 선택한 인물의 내면에도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중 인물들의 ‘상실감’을 죽음을 통해 고찰한 소에다 리에코(添田理恵子)는 『노르웨이의 숲』의 인물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의문을 안고 있으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표상에 불과하다는 의식<sup>4)</sup>에 빠져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나오코의 경우 기즈키의 죽음을 경험하며 보다 절망적인 장소로 자신을 몰아내고자 하는 행위로 죽음을 선택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와타나베와 기즈키, 나오코의 관계는 작품 타이틀인 ‘숲(森)’과 같으며 인간은 하나의 개체가 아닌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sup>5)</sup>로 보아 기즈키의 죽음이 와타나베

3) 千石英世(1999) 「アイロンをかける青年 - 「ノルウェイの森」のなかで-」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 03』, 若草書房. p.55

4) 添田理恵子(1999) 「楽園喪失者の行方-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 『大阪青山短大国文』 (15), 大阪青山短期大学国文学会. p.97

5) 川村湊(1987) 「<ノルウェイの森>で目覚めて」 『群像』42(11), 講談社. p.200

와 나오코에게 준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는 죽은 자를 대변하는 기즈키가 느낀 ‘상실감’의 원인에 대해 규명하기보다는 기즈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인 나오코와 와타나베의 삶에서 그려지는 ‘상실감’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기즈키의 ‘자살’은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무언가의 결락에서 비롯된 내부적 요인의 ‘상실감’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에서는 기즈키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자살배경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하루키 작품과 『노르웨이의 숲』에서 그려지는 ‘상실감’과 ‘죽음’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말을 중심으로 기즈키가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던 내면적 박탈감의 경위와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하루키의 초기작에 해당하는 『노르웨이의 숲』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자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이는 하루키의 현재 작품까지 일관되어 그려지는 ‘자살’과 자살자들의 심리 상태를 고찰해 나가는데 있어 그 밑바탕이 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현대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노르웨이의 숲』 속의 죽은 자들의 ‘상실감’

『노르웨이의 숲』은 리얼리즘 형식을 취한 100퍼센트 연애소설이라는 점에서 이전 초기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라고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작가 본인이 『노르웨이의 숲』을 ‘연애소설’이라고 정의하고 독자 대부분도 ‘연애소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작품에는 ‘사랑’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연애소설’로 볼 수 없다”<sup>6)</sup>는 지적처럼, 본 작품에 등장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행위에는 ‘연애’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상실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작품에 만연한 ‘상실감’을 단순히 남녀의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결락만으로 보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노르웨이의 숲』은 비록 남녀의 ‘연애’가 중심 라인을 이루고 있지만, 시대적 배경이 기준에 발표된 작품과 일치하고 있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극심한 허

6) 孫樹林(1995) 「<喪失>への挽歌--「ノルウェイの森」の主題について」 『日本文化』(18), 拓殖大学日本文化研究室. p.4

무주의에 빠져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그 기본 골격은 기존 작품과 동일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작품 속 인물들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키 초기 작품과 『노르웨이의 숲』에서 그려지는 ‘상실감’의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노르웨이의 숲』에 나타난 인물들의 ‘상실감’은 어떠한 개별적 특징을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다케다 세지(竹田青嗣)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風の歌を聴け)』(1979, 講談社)와 『1973년의 핀볼(1973年のピンボール)』(1980, 講談社)과 같은 하루키의 초기 작품을 언급하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에는 “무언가의 이유로 타인이나 세계에 대하여 ‘쿨’하고 내폐적(内閉的)인 태도밖에 취하지 않고 있으며, 답답할 정도로 미적지근한 ‘어쩔 수 없음(仕方なさ)’”<sup>7)</sup>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어쩔 수 없음’의 원인이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거쳐 세상에 가졌던 내폐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았으며 하루키의 초기 작품에는 이와 같은 “시대적 문학”의 특징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케다의 지적처럼 하루키의 초기 작품 속 인물들이 가지는 ‘상실감’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70년대와 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하루키의 초기작인 ‘쥐 삼부작’은 전공투(全共闘)운동을 경험했던 단카이(団塊)세대에 속하는 ‘나(僕)’와 ‘쥐(鼠)’가 주인공으로,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상실감, 즉 대학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한 시대가 막을 내리며 맛보게 된 박탈감이 내재되어 있다. 반면 『노르웨이의 숲』은 초기 ‘쥐 삼부작’과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작품에서 그 시대를 휩쓸었던 전공투 운동은 그저 단순한 배경의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주인공들은 단카이 세대와 동시대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운동에 대해 무심하거나 비판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숲』의 인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상실감을 기존 초기 삼부작의 ‘나’와 ‘쥐’가 경험했던 시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다른 형태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케다의 언급처럼 『노르웨이의 숲』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서로 간에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타인이나 세계에 대하여 쿨하고 내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는 분명하나, 그들의 쿨하고 내폐적인 태도의 원인은 시대적 배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숲』의 상실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괴리를 경험했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7) 竹田青嗣(1988) 「村上春樹論 一喪失を呼びよせるもの(現代小説の方法的制覇<特集>) - (村上春樹の幻影宇宙)」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33(10), 学灯社. p.188

필요가 있다. 하루키의 데뷔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양을 둘러싼 모험(羊をめぐる冒険)』(1982, 講談社)을 비롯한 ‘쥐 삼부작’에도 ‘나’와 세 번째로 잤던 불문과 여학생의 자살, 연인으로 그려지는 나오코라는 여성의 자살, 그리고 ‘나’의 분신과도 같은 ‘쥐’가 홋카이도(北海道)의 별장에서 대들보에 목을 매 죽었던 것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자살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 작품에서 그려지는 ‘자살’의 양상은 마치 신문 기사를 읽어 내려가듯 매우 단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만 그려지고 있으며, 자살자의 내면 심리나 그들의 죽음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게 그려지고 있다.<sup>8)</sup>

요시카와 야스히사(芳川泰久)도 하루키 작품에서 빈번하게 그려지는 ‘죽음’의 양상에 대해 주목한 바 있는데 그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무심하게 삽입되어 있는 ‘불문과 여학생’의 죽음과 『양을 둘러싼 모험』의 ‘쥐’의 자살,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에서 기즈키와 그의 연인인 나오코의 자살 등을 언급하며 “하루키의 작품은 누가 죽는가라는 죽음의 개별성보다, 얼마나 죽음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가”<sup>9)</sup>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동질의 죽음은 곧 자아에 의해 선택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하루키 작품 속에서 반복되어 그려지는 생리”<sup>10)</sup>라고 보았다. 이처럼 이전에 발표된 초기 작품에도 자의적 선택에 따른 죽음은 빈번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특히 『노르웨이의 숲』에서는 객관적 묘사에 그친 ‘죽음’이 아닌,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서 ‘죽음’이 중심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기존 작품들이 누군가의 자살을 담담하게 묘사하는 것에 그쳤다면 『노르웨이의 숲』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다루고, 그 죽음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죽음을 인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와타나베의 독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제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내 안에는 무언가 뿌옇게 흐린 공기덩어리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시간

8) “무라카미 하루키의 처녀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노르웨이의 숲』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거의 같으며,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노르웨이의 숲』에서 무엇을 의식적으로 다루려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두 작품에서 작가가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또 다루려고 했던 것은, 섹스와 죽음의 문제이다. 처녀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섹스와 죽음의 문제를 피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숲』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문학사상사 자료조사연구실 편저(1996) 『하루키 문학수첩』, 문학사상사, p.153)

9) 芳川泰久(1989) 「失われた冥府 - あるいは村上春樹における(村上春樹の世界<特集>」 『ユリイカ』 21(8), 青土社, p.128

10) 전개주 8) 芳川泰久(1989) p.129

이 흐를수록 그 덩어리는 단순하면서도 뚜렷한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형상을 말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죽음은 삶의 대극으로서가 아닌,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말로 해버리면 평범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하나의 공기 덩어리로서 느꼈던 것이다.<sup>11)</sup> (pp.39-40)

와타나베의 경우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무언가 뿌옇게 흐린 공기덩어리 같은 것”이 자신 안에 남아있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와타나베가 기즈키가 죽은 이후 “죽음이 삶의 대극적인 존재가 아닌 ‘나’라는 존재 안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으로,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던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때까지도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죽음은 언젠가는 확실히 우리들을 그 손아귀에 넣는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들을 잡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죽음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것은 나에게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인 명제로 생각되었다. 삶은 이쪽에 있으며, 죽음은 저쪽에 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는 없다.

그러나 기즈키가 죽은 밤을 경계로 하여, 나로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죽음을(그리고 삶을) 파악할 수는 없게 되었다. 죽음은 삶의 대극적인 존재 따위가 아니었다. (p.40)

이는 기즈키의 죽음이 와타나베의 삶의 전반적인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일곱 살에 기즈키를 사로잡은 죽음은 와타나베마저 사로잡았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았던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염세관의 영향으로 와타나베는 항상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본질적으로 자신에게밖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과 타인에 대해 무심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기즈키의 죽음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인물인 나오코 또한 육체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빈껍데기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11) 작품의 원문인용은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 제6권(『村上春樹全作品 1979~1989』1991, 전8권, 講談社)에 의하며 인용자가 번역하였다. 인용문 뒤에는 쪽수를 기재하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다. 눈동자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맑아 저쪽 세계가 비쳐 보일 정도였지만,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 우리의 얼굴은 서로 30센티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몇 광년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p.191)

나오코의 눈동자가 저쪽 세계를 비출 정도로 실체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기즈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몸이 두 개로 갈라져서 쫓고 쫓기는 가운데 ‘이쪽’에 있는 자신이 절대로 ‘저쪽’에 있는 자신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점차 제대로 된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말 찾기 병’에 걸려, 스무살의 생일 이후 요양 시설인 아미료(阿美寮)에 입원하게 된다. 와타나베는 나오코가 요양생활을 통해 차츰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오코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즈키가 어두운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결국 기즈키와 같은 자의적 죽음을 선택하고 만다. 이처럼 나오코의 병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기즈키를 잃은 것에서 기인하며 나오코와 와타나베의 이후의 삶을 통해 기즈키의 죽음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남겨진 자에게 미치는 죽음의 영향이 『노르웨이의 숲』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죽음이 가지는 연쇄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숲』은 기존 작품들과 시대적 배경은 동일하나 인물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에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 작품에서는 진공투 운동의 실패와 한 시대의 종막 같은 외부적 요소가 각 인물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다면, 『노르웨이의 숲』의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에서 발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숲』에서는 누군가의 자의적 ‘죽음’을 계기로 타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영향을 중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작품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내면적 ‘상실감’은 죽음을 선택한 자들이 경험한 ‘상실감’과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 남겨진 자들의 내면적 ‘상실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경험한 상실감, 그 중에서도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기즈키의 죽음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살자들의 공통된 특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의 죽음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즈키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실감을 규명해 나가는 것은 작품에서 그려지는 죽은 자들의 상실감을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자기 폐쇄적 세계의 균열과 경계선 상의 자아

『노르웨이의 숲』은 ‘자살 소설’이라 불릴 정도로 병이나 사고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죽음이 아닌 자의적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 등장한다. 기즈키, 나오코, 그리고 나오코의 친언니, 나오코의 삼촌, 그리고 와타나베의 선배인 나가사와(永沢)의 애인 하쓰미(ハツミ)의 자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작품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내면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상실감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공통점이 엿보인다.

특히 이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자 했던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스스로가 규정지은 완벽함을 너무나도 추구한 나머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도움을 청하는 방법조차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키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나오코의 이야기 속에서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나오코의 친언니의 모습을 통해 부각된다. 열일곱이라는 나이에 자살을 한 나오코의 친언니는 평소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완벽했던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일은 자기 혼자서 처리해버리는 사람이었어.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 특별히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니야. 그저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 아마도. (중략) 정작 자신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의논을 한 적이 없었어. 혼자서 처리했지. 화내는 일도 없고 기분 나빠하는 일도 없었어. (중략) 언니의 경우에는 짜증을 내는 대신 혼자 틀어박히곤 했어. 두세 달에 한번 씩 그런 때가 오면 이틀 정도 자기 방에 틀어 박혀서 잠을 잤어. 학교도 가지 않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을 캄캄하게 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 (p.211)

나오코의 친언니는 문제가 닥치면 늘 자신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인물로 주변에서는 항상 그녀를 ‘똑똑하고 완벽한 존재’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녀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은 “특별히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항상 혼자서 해결해 온 나머지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홀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 그녀가 두세 달에 한번 씩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방에 틀

어박히는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은 자신을 엄습하는 모든 문제와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일련의 ‘휴게(休憩)상태’를 유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그녀의 증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보다는 “뚝뚝한 아이니까 내버려둬도 그럴 저력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방치해 버리고 만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나약한 면과 중압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스스로 껴안았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주의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존재로 왜곡되어 비추어진 것이다. 나아가 ‘완벽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신 스스로도 완벽함에 집착한 나머지 막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극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홀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켜 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호환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내면세계에 고립되어 버리는 ‘자기 폐쇄적(自己閉鎖的)’ 성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오코의 친언니와 같이 『노르웨이의 숲』에는 자신이 지향하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 모든 문제를 끌어안은 채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성숙되지 못한 ‘자기 폐쇄적’ 성향의 자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기즈키의 경우 이러한 성향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대표된다. 그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폐쇄적인 세계를 나오코와 공유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에다 리에코가 지적하듯이 두 사람의 자아가 독립된 자아가 아닌 미분화(未分化)된 자아이며 “서로의 ‘자아’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둘만의 관계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완전한 세계’<sup>12)</sup>를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나오코는 기즈키와의 관계를 일컬어 “보통의 남녀관계와는 달리 무언가의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려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기즈키와 나오코는 하나의 폐쇄적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각각 별개의 자아가 아닌 하나의 완전체와도 같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세계를 구축하여 둘 이외의 타인과는 일절 관계를 단절시킨 상태를 유지한 채 성장해 왔다. 기즈키가 죽은 이후 나오코는 자신들의 특별했던 둘만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들은 그런 상태로 성장했어. 둘이 손을 붙잡고 한 짝이 되어서 말이지. 보통 성장기의 아이들이 경험할법한 성의 중압이나 에고의 팽창의 괴로움 같은 것은 거의 경험한 적 없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에 대해

12) 전계주 4) 添田理恵子(1999) p.98

일관성 있게 열려 있었고 자아도 서로 흡수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하게 의식되는 일도 없었고. 내 말 뜻 이해하겠어? 우리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였어. 그래서 만약 기즈키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고 조금씩 불행해져 갔을 거라 생각해.” (pp.187-188)

작품 내에서 기즈키의 내면 묘사는 일절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나오코의 언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나오코의 말에서 엿보이듯이 기즈키와 나오코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성의 중압’이나 ‘에고의 팽창’과 같은 성장기에 거쳐야 할 단계를 뛰어넘으며 완전한 둘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왔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코가 언급한 “조금씩 불행해져 갔을 거”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의 완전한 세계는 애당초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와도 같았던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루키는 완전한 자기 폐쇄적 세계가 붕괴되면서 이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둘만의 세계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두 사람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와타나베와 교류를 시작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을 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기즈키는 정말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 최초의 타인과의 접촉이었어.” (p.189)

즉 와타나베의 개입은 둘만의 완전한 폐쇄적 세계의 균열을 뜻하기도 하지만, 나오코의 말을 참고해볼 때 외부와의 소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 그를 매개로 하여 지금까지 미숙했던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오코의 “성장의 고통과 같은 것을 치러야 할 때 치르지 않았으니 그 청구서가 지금 날아 온 거”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 오랫동안 폐쇄적 세계를 고수해왔던 두 사람이 자신들의 세계를 개방한 이후 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즈키의 내면적 괴리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무인도에서 자란 알몸의 아이들 같았어. 배가 고프면 바나나를 먹고 외로워지면 둘이서 끌어안고 잤어. 하지만 그런 게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아. 우리들은 점점 커가고 사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어. 너는 우리들과 바깥세계를 잇는 고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우리들은 너를 매개로 해서 바깥세계에 잘 동화하려고 우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어. 결국은 잘 안되었지만.” (p.188)

나오코의 “결국은 잘 안되었지만”이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엿보이듯이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세계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와타나베를 통한 세상과의 소통역시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즈키의 경우 나오코 이외의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와타나베가 본 기즈키는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자신보다는 주변의 누군가를 항상 배려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순간순간 파악하여 거기에 맞추어 잘 대응해 나갈 줄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지 재미없는 상대방의 이야기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오코의 회상을 통해 드러나는 기즈키의 모습은 와타나베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즈키와는 전혀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건 네 앞이라 그런 거야”라고 나오코는 말했다. “기즈키는 네 앞에서는 언제나 그랬어. 약한 면은 안 보이려고 애썼지. 분명 너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좋은 면만을 보이려고 했었지. 하지만 나와 둘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 힘을 조금 뺐거든. 사실은 번덕이 심했어. 예를 들면 주절주절 혼자 떠들어대다가도 어느 순간 침울해져.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랬지. 하지만 늘 자신이 달라지도록 향상되도록 노력했어.” (pp.185-186)

완전한 자기 폐쇄적 세계에서 성장한 기즈키는 와타나베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지만, 그 소통에 미숙한 나머지 다수의 사람이 아닌 오직 와타나베와 나오코라는 두 사람하고만 한정된 소통을 하였고 그 작은 관계 속에서도 미숙함을 보였다. 와타나베는 기즈키를 보며 “그토록 머리가 좋고, 좌중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줄 아는 재능을 가진” 그가 그 능력을 좀 더 넓은 세계로 돌리지 않고 작은 세계에 만족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와타나베가 기즈키의 본연의 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기즈키는 와타나베에게 자기 폐쇄적 세계에서 구축된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보여주고 싶던 가공의 완벽한 자아로 일관하면서 스스로의 단점은 절대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기즈키가 유년 시절부터 나오코 이외의 인물과는 일절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나오코의 경우 타인이 아닌 기즈키 자신의 또 다른 자아였기 때문에, 기즈키에게 있어 유일한 타인은 와타나베였다. 결국 일반적으로 성장하면서 겪는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

했던 기즈키는 와타나베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나오코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와타나베를 대한다. 즉, 나오코의 친언니와 마찬가지로 기즈키는 외부세계의 타인으로 대변되는 와타나베에게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있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와타나베와 나오코가 알고 있는 기즈키는 완전히 상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즈키의 양면적 태도를 그가 자기 폐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외부와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기즈키는 두 개의 자아의 충돌로 인해 생겨난 내면적 괴리를 겪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만다. 그리고 이 내면적 괴리는 기즈키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언제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향상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초조해하고 슬퍼했어. 훌륭한 점이나 아름다운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점도 바뀌어야 저것도 해야지 그런 생각만 했어. 불쌍한 기즈키.” (p.186)

위의 나오코의 말에서도 엿보이듯이 기즈키는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늘 불안해하였다. 이는 외부세계로 나서는 순간 더 이상 이전의 자기 폐쇄적 세계로의 귀향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즈키는 자신만의 “훌륭한 점이나 아름다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 폐쇄적 세계에 갇혀 살아왔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벽을 절감한 순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버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폐쇄적 세계에서 성장한 기즈키의 자아는 외부세계의 개방을 통해 생겨나는 의무감과 중압감을 홀로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했다. 기즈키는 스스로의 나약한 자아에 자괴감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안주하고 있던 자기 폐쇄적 세계로도 돌아갈 수 없는 애매한 경계선에 놓여 방황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의 거처를 잃어버린 기즈키는 자신의 분신인 나오코에게도, 외부세계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와타나베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돌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는 자아의 괴리에 고뇌하던 기즈키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즈키의 회피적인 태도는 다음의 와타나베의 독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너와는 달리 난 살기로 결정했고 그것도 내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결정했어. 너도 틀림없이 괴로웠겠지만 나 역시 괴로워, 정말이야. 이렇게 된

건 네가 나오코를 남겨 놓고 죽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난 그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야. 나는 그녀가 좋고 그녀보다는 내 쪽이 강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성숙해질 거야. 어른이 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

난 지금껏은 열일곱, 열여덟인 채로 있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십대의 소년이 아니니까. 난 책임이란 것을 느껴.

아아, 기즈키! 난 너와 함께일 때의 내가 아냐. 난 이미 스무 살이 된 거라고. 그래서 난 계속 살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만 해. (p.356)

와타나베의 지금보다 더 강하고 성숙해져서 “살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다짐에는 열일곱 당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돌연 자살을 선택했던 기즈키의 나약함에 대한 책망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즈키가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즈키는 지금까지 폐쇄적 세계 안에서 안주해 온 나머지 성장하면서 치러야 할 발달 단계를 뛰어넘었고 따라서 그 단계마다 거쳐야 할 실패와 좌절에 단련되지 못했다. 스스로는 완벽함을 추구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자신은 외부의 자극에 견디어 나가기에 너무나도 나약하였고 거기서 맛보는 좌절감은 더욱 그를 고립시켜갔다. 결국 기즈키는 성장해나가면서 점차 지불해야 할 삶의 대가와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끼며 이에 맞서 나아가기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 4. 보완자로서의 나오코의 부재와 안식처의 상실

기즈키를 죽음으로 내몰게 한 상실감, 즉 내면적 박탈감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신의 분신이자 완전한 세계의 동반자였던 나오코의 태도변화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즈키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며 괴리에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기즈키에게 나오코라는 존재는 유일한 안식처였고, 그녀 앞에서는 자신의 본래의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휴게 상태’를 보일 수 있었다.

기즈키가 나오코에게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며 ‘휴게상태’를 보인 것처럼 『노르웨이의 숲』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게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일종의 ‘휴게 상태’를 유지하는 장면이 반복되어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나오코의 친언니가 두세 달에 한번 씩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던 것도 외부의 스트레스와 자극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했던 ‘휴게 상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태는 미도리(綠)와 와타나베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한다.

화재가 수습되고 나자, 미도리는 어쩐지 얼이 빠져 버린 것만 같았다. 몸의 힘을 빼고 멍청하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지켰어?”

“그렇진 않아요.”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오랜만에 힘을 빼본 것뿐이에요. 멍하니.”

내가 그녀의 눈을 보자, 그녀도 내 눈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다. (p.117)

이웃집에 화재가 일어나던 날 밤, 옥상에서 즐겁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미도리가 갑자기 와타나베의 어깨에 기대어 “오래간만에 힘을 조금 뺐을 뿐”이라고 하는 장면 역시, 아버지의 병환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던 그녀가 잠시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와타나베에게 기대어 치유를 받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즈키와 나오코의 경우 두 사람만의 완전한 세계를 구축하며 두 개의 자아를 하나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즈키에게 있어 나오코라는 존재는 완전한 자신만의 안식처였음에 분명하다.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나와 둘이 있을 때에는 힘을 조금 빼며” 기즈키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기즈키가 외부세계와의 소통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나약한 일면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안식처로 돌아가 휴게 상태를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두 사람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 가능했던 이 이상향적인 세계는 외부와의 소통이 시작되면서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간다. 이전의 자기 폐쇄적 세계에서 나오코는 기즈키의 고민과 괴로움을 전부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진행되면서 기즈키가 경험한 내면적 괴리를 나오코가 전부 이해해 주지 못하면서 그 안식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그 사람의 약한 면도 무척 좋아했어. 좋은 면 못지않게 좋아했으니까. 그에겐 교활하거나 심술궂은 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야. 그저 약했을 뿐이지. 그런데도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믿어주질 않았어. 한결같이 대꾸가 이랬어. ‘나오코, 그건 너와 내가 세 살적부터

늘 함께 있었으니까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가 결점이고 뭐가 장점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온갖 것을 범벅으로 만들고 있어, 넌’ 그는 항상 그랬어.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하던 난 그 사람이 좋았고, 그 이외의 사람에게겐 거의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었어.” (p.187)

나오코의 말에 드러나는 기즈키의 언급을 통해, 기즈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오코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나오코를 통한 완전한 치유와 휴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기즈키는 이미 자신의 나약한 자아로는 외부와의 접촉이 용이하지 못함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나오코는 어린 시절부터 기즈키와 모든 것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기즈키의 결점과 장점을 구분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기즈키가 자신의 결점으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 속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느꼈던 괴리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기즈키의 내면에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지 못하는 나오코에 대한 책망마저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나오코라는 안식처에서 자신이 원하던 치유를 받지 못했던 기즈키는 자신을 치유해 주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휴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안식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기즈키를 받아들이던 나오코가 와타나베라는 외부와의 소통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본래 알고 있는 기즈키보다는 와타나베를 통해 형성된 외부의 기즈키의 모습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기즈키의 괴리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너하고 기즈키와 함께 셋이서 있는 게 참 좋았어. 그러면 나도 기즈키의 좋은 면만 볼 수 있잖아. 그럴 때면 기분이 좋아졌어. 안심되었고. 그래서 셋이서 있는 것이 좋았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p.186)

이러한 나오코의 태도 변화는 그들의 ‘완전한 세계’와 ‘안식처’의 균열을 의미하며, 이것을 기즈키가 인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외부세계에서 만들어낸 자신의 자아를 더 선호하는 나오코의 모습을 보며, 기즈키는 나오코마저 자신을 외부세계로 떠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소에다 리에코도 기즈키의 죽음은 나오코가 그의 “완전한 세계의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발생”<sup>13)</sup>하였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자신의 분신이자 보완자였던 나오코의 역할 부재로 기즈키는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라 여겼던 ‘완전한 세계’가 붕괴되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13) 전계주 4) 添田理恵子(1999) p.99

따라서 기즈키의 내면에는 ‘완전한 세계’의 붕괴로 인한 상실감과 보완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나오코에 대한 책망이 동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오코는 기즈키가 경험했던 내면적 박탈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며 기즈키가 외부와의 소통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괴리에서 발생한 ‘완전한 세계’의 붕괴는 기정된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오코가 기즈키의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와타나베 역시 나오코가 가진 괴리감과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만약 나오코가 지금 당장 나를 필요로 하면 나를 쓰면 되는 거야. 안 그래? 어째서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어깨의 힘을 좀 빼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야. 어깨에서 힘을 좀 빼면 몸이 가볍게 돼.”

“어째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하고 그녀는 몹시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나는 뭔가 아주 잘못된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그녀는 꿈쩍도 않고 발밑의 땅을 보면서 말했다

“어깨 힘을 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쯤은 나도 알아. 그건 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알겠어? 내가 지금 어깨 힘을 뺐다면 산산조각이 난단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만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한 번 힘을 빼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난 산산조각이 나서 어딘가로 날아가 버릴 거야. 어째서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돌봐 준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pp.14-15)

이 장면에서 와타나베는 나오코에게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가볍게” 하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기즈키가 나오코에게 휴게 상태를 보였듯이 나오코가 자신에게 기대어 나약함과 내면적 괴리감을 털어놓기를 바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오코는 이미 기즈키와의 완벽했던 세계의 붕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휴게 상태를 취할 수 있는 완전한 세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와타나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숲』에서 자살을 선택한 인물들이 이처럼 자신의 괴리를 이해해줄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가사와의 애인인 하쓰미의 에피소드에서도 그려진다.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와타나베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구원해 주어야야” 했다고 언급하는데, 하쓰미는 자신의 전부

었던 나가사와와의 관계에서 안식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인생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 문득 생각이 난 것처럼” 자의적 죽음을 선택하고 만다. 하쓰미에게는 자신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었던 구원의 안식처가 부재했던 것이다.

자신만의 완전한 세계의 붕괴를 경험하고 보완자를 잃어버린 기즈키도 결국 아무런 예고나 조짐도 없이 갑작스런 죽음을 선택하는 결말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그가 자의적 죽음, 즉 자살을 선택한 심리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일까. 기즈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완전한 세계’의 붕괴로 인한 상실감과 그녀에 대한 책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자살’이라는 행위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는 자의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자살자의 심리를 연구한 토머스 조이너(Thomas Joiner)는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식과 자신이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소속감 부재에서 비롯된 깊은 단절감”<sup>14)</sup>이 자살자에게 동반되는 심리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알프레드 알바레즈(Alfred Alvarez)는 『자살의 연구』를 통해 자살자의 심리에는 “자살이 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삶에서 절대 찾지 못했던 평온을 누리기 위한 시도이며, 자살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재정립하고 처음으로 내 의지에 형태를 부여”<sup>15)</sup>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살자의 심리 상태로 유추해 볼 때 기즈키의 경우 폐쇄적 세계의 재구축도 외부와의 소통도 모두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소속감의 부재를 경험하였고, 결국 자신의 의지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힌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한 기즈키는 자신을 둘러싼 괴리와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무(無)의 상태로 되돌려 평온을 찾고 싶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뇌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즈키가 선택했던 자의적 죽음이야말로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내포된 마지막 행위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며

본 논에서는 기존 하루키 작품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죽음’과 『노르웨이의 숲』에서 그려지는 ‘죽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말을

14) 토마스 조이너(Thomas Joiner)·지여울 역(2011)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이직북스. p.74

15) 알프레드 알바레즈(Alfred Alvarez)·최승자 역(1995) 『자살의 연구』, 청하. p.171

중심으로 하여 기즈키가 내면적 박탈감을 느끼는 과정과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기존 하루키의 초기 작품에는 죽음이 단편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노르웨이의 숲』에는 인간내면의 문제와 결부되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연구의 초점은 죽은 자의 상실감보다는 살아남은 자의 내면적 상실감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본 논에서는 연구가 미진했던 기즈키의 죽음에 주목해보았다.

기즈키는 나오코와 함께 완벽한 자기 폐쇄적인 세계를 구축하면서 발달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외부의 자극에 취약한 자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세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든 것을 깨닫고 와타나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기즈키는 외부세계에서 자신이 지향하던 완벽한 자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점차 기존에 형성된 자아와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자아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눈에 비친 기즈키에 대한 서로 다른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오코가 외부에서 만들어낸 기즈키의 자아를 선호하면서 기즈키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며 ‘휴게 상태’를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를 상실하고 돌아갈 곳을 잃고 만다. 즉, 두 개의 자아의 괴리와 나오코의 부재가 극도의 ‘상실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완전한 세계’의 붕괴로 인해 본래 세계로의 귀향도 적극적으로 외부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경계선에 놓이게 된 기즈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의적 죽음을 선택하는데, 이는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방황하던 그가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무(無)’라는 원점으로 되돌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던 마지막 행위가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루키는 한국어판 후기를 통해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아(自我)의 무게에 맞서는 것인 동시에, 외부 사회의 무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며 누구나가 그 싸움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은 아니”<sup>16)</sup>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자기 폐쇄적 세계에서 벗어나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좌절감을 경험하고 추락한 기즈키의 모습과도 상통된다.

본 연구는 하루키의 초기 작품 중에서도 ‘자살 소설’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죽음이 심층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노르웨이의 숲』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 죽은 자들의 내면심리에 대해 분석해본 것이다. 이것은 이후 하루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자살자들의 양상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이며, 현대 사회에서 항상 심각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16)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유유정 역(2010) 「한국어판에 부치는 저자의 서문」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사. p.9

대하여 하루키의 작품이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금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村上春樹(1991) 『ノルウェイの森』 『村上春樹全作品 1979~1989』 第6卷, 講談社
-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유유정 역(2010) 「한국어판에 부치는 저자의 서문」 『상실의 시대』, 문학사상사. p.9
- 문학사상사 자료조사연구실 편저(1996) 『하루키 문학수첩』, 문학사상사. p.153
- 알프레드 알바레즈(Alfred Alvarez)·최승자 역(1995) 『자살의 연구』, 청하. p.171
- 토마스 조이너(Thomas Joiner)·지여울 역(2011)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베이직북스. p.74
- 川村湊(1987) 「<ノルウェイの森>で目覚めて」 『群像』 42(11), 講談社. p.200
- 添田理恵子(1999) 「樂園喪失者の行方—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 『大阪青山短大 国文』 (15), 大阪青山短期大学国文学会. p.97 p.98 p.99
- 孫樹林(1995) 「<喪失>への挽歌—「ノルウェイの森」の主題について」 『日本文化』 (18), 拓殖大学日本文化研究室. p.4
- 竹田青嗣(1988) 「村上春樹論—喪失を呼びよせるもの(現代小説の方法的制覇<特集>)- (村上春樹の幻影宇宙)」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33(10), 学灯社. p.188
- 千石英世(1999) 「アイロンをかける青年 - 「ノルウェイの森」のなかで-」 『村上春樹スタディーズ03』, 若草書房. p.55
- 芳川泰久(1989) 「失われた冥府 -あるいは村上春樹における(村上春樹の世界<特集>」 『ユリイカ』 21(8), 青土社. p.128 p.129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1&CONT\\_SEQ=301867](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1&CONT_SEQ=301867)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 분석
- <http://ko.wikipedia.org/wiki/OECD> 회원국 자살률 목록

##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村上春樹の『ノルウェイの森』で登場する自ら「死」を選択した人物を中心に彼らが経験した「喪失」の究明、特にキズキの内面意識の考察にある。

以前の春樹の作品では死の様子が短編的でその経過及び影響が省略されているが、『ノルウェイの森』では死が周りの人たちの生に与える影響がより深く描かれており、またその死は全般的に自我によって自ら選択したものであり、その人物の間にはいくつかの共通点がみえる。自意的に死を選択した人物は自閉的な傾向を持っている。そして、自分の自閉的傾向を改善するため外部世界に立ち向かって闘おうとするが、結局自分の限界を感じ挫折する様子が窺える。その代表的な人物がキズキである。

彼は直子と一つの閉鎖的な世界を共有するが、二人だけの断絶された世界で成長したあまりに、彼は成長段階で経験すべき刺激、支払うべき代価を払わずに成長してしまう。その結果、彼の自我は外部世界の刺激を我慢するにはあまりにも弱い存在として成長してしまう。そして成長するにつれ、自分たちの断絶された世界を維持するのが不可能であることを認識し、ワタナベという友人を介して外部との疎通をはかるが、やはり外部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未熟な姿を見せる。すなわち、キズキは本物の自我とは異なる外部の自我を作り出し、その二つの自我の間で乖離を感じるのである。

また、自分に課せられた責任感と重圧感から挫折を感じたキズキは自分のもとの世界に回帰しようとするが、自分の弱さを満たしてくれた直子の不在により世界の崩壊を経験する。結局、キズキは本来の状態に回帰することも外部の世界に進むことも出来ずに、自分の居場所を喪失してしまうのである。

世の中には外部の刺激から自分の身を守ることができず、自分の弱い自我を保護するため自分だけの世界に閉じ込められてしまう人間がいる。また外部の世界から受ける刺激に限界を感じた人間は他人に助けを求めることもできず、責任感と刺激から抜け出すため極端的な選択をする場合もある。この傾向は現代社会の問題である「ひきこもり」と「自殺」現象の一部だといえるだろう。『ノルウェイの森』には人間であれば誰もが持っているその人間の弱さが極端的に現れている作品である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キズキ、喪失、自己閉鎖性、自殺、死、休憩状態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